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용인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중고등부	국 적	내국인
공모분야	시나리오	세부분야	드라마

출품자 프로필			
성 명	김수진	소속(학교명)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스토리텔링 창작물 개요	
제 목	마지막 영웅
주 제	뜨거운 민족애와 믿음
주요내용	<p>고려 고종 1232년,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이 평화롭던 처인 부곡 마을에 침입해온다.</p> <p>고종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모두 강화도로 피신하고, 마을 촌장마저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촌장의 딸 아미가 남겨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마을을 이끌어 가게 된다.</p> <p>몽고군이 마을 앞까지 진격해오자 부곡 마을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처인성으로 몸을 숨기게 되고 고천이 도망가다가 몽고군에게 붙잡힌 촌장을 구하려다가 돌개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한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몽고군 진영과 근접해 있어서 항상 두려움에 떨던 부곡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칼과 창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p> <p>마을 사람들은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어가며 밤을 지새우고, 식량이 떨어져서 눈과 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간다.</p> <p>몽고군과의 전쟁에 지쳐가던 중, 보현원 승려 김윤후가 도우러 오고, 승장이 되어 고길과 함께 부곡민들을 지휘한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삼은 전투 중 아이를 지키려다가 안타깝게 죽게 된다.</p> <p>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은 살리타이는 전사하고 적장을 잃은 몽고군은 철수하여 처인부곡민들이 승리하게 된다.</p>



《시놉시스》

1. 제목 : 마지막 영웅
2. 주제 : 뜨거운 민족애와 믿음
3. 작의 : 국사시간에 여러 전쟁에 대해 공부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라를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와 국난을 극복하려는 군사,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냈다.

그러나 처인성 전투는 다르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피신하고, 남겨진 농민과 천민들이 힘을 합하여 세계 최강국 몽고에게 대항했던 전쟁.

처인 부곡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항전해서 지켜낸 마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뜨거운 민족애와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낸 승리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4. 등장인물

- 김윤후(남/33세) : 보현원 승려. 처인성 전투에서 식량을 지원해주고 무술을 가르치는 등, 부곡민들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 아미(여/22세) : 부곡 촌장의 딸. 마음이 따뜻하고 총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곡민들을 책임지고 이끈다.
- 고길(남/25세) : 부곡리 주민. 죽은 고천의 형. 용맹하고 무술에 능해서 김윤후와 함께 군사들을 지휘한다.
- 고천(남/24세) :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인물. 촌장을 구하려다가 죽음을 맞는다.
- 살리타이 : 몽고 총 사령관. 용맹하지만 생각이 짧고 잔인한 기질을 지녔다.
- 두삼(남/18세) :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정의로운 청년. 어린아이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는다.
- 부곡리 촌장(남/55세) : 전쟁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혼자 도망 가버리는 이기적인 인물.
- 곱자, 향분(여/17세) : 부곡리 마을에 사는 착하고 예쁜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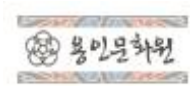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그 외 등장인물 : 사내 1.2.3, 테고, 아낙네, 최씨 할아버지, 할머니, 승려들, 몽고장수들, 군사들, 아이들, 돌개

《줄거리》

고려 고종 1232년,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이 평화롭던 처인 부곡 마을에 침입해 온다.

고종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모두 강화도로 피신하고, 마을 촌장마저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촌장의 딸 아미가 남겨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마을을 이끌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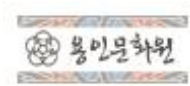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몽고군이 마을 앞까지 진격해오자 부곡 마을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처인성으로 몸을 숨기게 되고 고천이 도망가다가 몽고군에게 붙잡힌 촌장을 구하려다가 돌개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한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몽고군 진영과 근접해 있어서 항상 두려움에 떨던 부곡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칼과 창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마을 사람들은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씨에 벌벌 떨어가며 밤을 지새우고, 식량이 떨어져서 눈과 풀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간다.

몽고군과의 전쟁에 지쳐가던 중, 보현원 승려 김윤후가 도우러 오고, 승장이 되어 고길과 함께 부족민들을 지휘한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삼은 전투 중 아이를 지키려다가 안타깝게 죽게 된다.

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은 살리타이는 전사하고 적장을 잃은 몽고군은 철수하여 처인부족민들이 승리하게 된다.



S# 1. 처인성 안

수많은 사람들(승려, 부곡민들)이 몰려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김윤후가 긴 칼을 뽑은 채 서있다.

김윤후 : (칼을 뽑은 채, 큰 목소리로) 우리들은 강하다! 마지막 우리의 숨소리가 멈출때까지 끝까지 싸워라!!!!

고길 : (갑자기 가운데로 튀어나온 후 주먹을 째 쥐어서 들어올린다) 우리 모두 몽고군을 몰아냅시다!!!

사람들 : (모두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합성을 지른다) 와아아아아아~~~!!!!

S# 2. 고려 궁궐

《F.I》 고종이 의자위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린다.

고종은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읽고 있다. 문하시중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온다.

문하시중 : (큰 목소리로) 폐하~ 원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했다고 하옵니다.

고종 : (상소문을 읽다가 깜짝 놀라며) 지금...뭐라고 하셨소? 원나라와 전쟁을 치룬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쳐들어 온다는 말이오.

문하시중,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관료1 : 폐하. (문하시중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문하시중이라고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괜히 전쟁을 치뤘다간 (신하들 눈치를 본다) 모두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관료2 : (관료1의 말에 끄덕끄덕 하다가) 맞습니다. 원나라는 분명히 저번 충주성 전투의 패배를 앙갚음하려 들 것이옵니다. (고종의 눈을 피한다) 항복해야 합니다.

고종 : (손을 머리에 괴고 고민한다.) 허....

모든 신하들 :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S# 3. 궁궐 뒤뜰

고종이 뒷짐을 진 채로 궁궐 뒤뜰을 거닐다가 멈춰서서 하늘을 보며 고민한다.

젊은 내시 한 명이 문하시중과 함께 나타난다. 고종, 문하시중이 온 것도 모른 채 계속 고민에 빠져있다.

문하시중 : (고종 옆으로 한 발짝 다가선다)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고종 : (고개를 돌리며 열은 미소를 띤 채로) 아, 오셨소. 짐이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이러다 수명이 반으로 줄겠소. 하하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웃는다)

문하시중 : (근심어린 표정으로) 원나라 때문이옵니까?

고종 :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문하시중, 고종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문하시중 :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호소한다) 신을 용서하지 마소서..

S# 4. 부곡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서 잔치를 한다. 아낙네들은 전과 떡을 만들고 있고, 촌장과 사내들은 음식을 먹거나, 용기종기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을사람2 : (전을 우걱우걱 집어먹으면서) 아쭈니, 증~~말 맛납니다.

아낙네 : (음식을 뺏으면서 장난스럽게 화낸다) 엔간히 쳐먹으라. 장난하나!! 니 때문에 남은 음식이 없다!!

마을사람2 : (뒤돌아서서 아낙네에게) 아쭈니! 아쭈니!

마을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꺄꺄 웃는다.

그 옆에 3~4명의 아이들이 막대기를 쥔 채 닭을 쫓으며 뛰어다닌다.

그 때, 향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다.

향분 : (헉헉 하며 숨을 고른다) 아유, 아유~ 큰일났습니더! (이리저리 둘러보며) 근디 촌장님은 어디계신댁니꺼?? (여전히 둘러보면서 호들갑떨다)

촌장 : (아랫배를 째 내밀며 담뱃대를 물고 걸어온다. 귀찮은 표정) 향분아, 먼일있냐?

향분 : (촌장 앞으로 쏘르르 달려가) 촌장님, 그게유... 나랏님이 어디루 가신덴디예?

촌장, 갑자기 향분이를 데리고 마을 뒤편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촌장 : (향분이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작은 목소리) 그제...뭘 소리냐?

향분 : (촌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몽... 머시기 머라 했는디.. 지도 잘 모릅니더... 근디 나랏님이 신하들이랑 강화돈가 먼가 암튼 간다는디예.

촌장 : (뒤돌아서서) 《NAR -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골똘히 생각한다) 강화도.. 강화도.. (갑자기 눈이 커진다) 설마!!!!!!》 《카메라 : 촌장의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

S# 5. 원나라 궁궐 앞

《E》 뚜둥.

원나라 궁궐 앞. 쿠빌라이 황제가 살리타이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수많은 군사들 앞에 서 있다.

쿠빌라이 : (두 팔을 하늘 높이 벌리고 우렁 찬 목소리로) 대제국 원의 군사들이여, 고려를 무너뜨리고 원나라의 기상을 보여주거라!!!

원나라 장군들, 군사들 : (고개를 살짝 숙이고, 굵직한 목소리) 예! 폐하!



S# 6. 부곡(저녁)

집으로 들어온 촌장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음식과 돈 한 보따리를 챙긴다.

촌장 : (중얼거리며) 임금님이 신하들... 다 데리고 강화도로 갈 일이 뭐 있겠어..??!!? 분명 전쟁이 일어날거야.

촌장이 마을을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미가 부른다.

아미 : (긴장하는 목소리로) 거..거기 누구요?

촌장 : (아미 인 걸 알고 안심한다) 아미야!

아미 : (어둠속에서 누구인지 보려고 주의 깊게 살핀다) 아,,, 아버지!

촌장 : (손으로 '셋' 모양을 한다) 셋! 조용히 해! (작은 목소리로) 아미야, 어서 짐싸라.(안절부절 못하며) 아니다. 지금 당장 가자. 어서!!!

아미 : (의아해하며) 아버지, 전쟁이라도 나나요? 왜 그러세요??

촌장 : (조용히) 전쟁...날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이야기나 할 시간이 없다. (아미의 손을 잡으며) 가자, 아미야!

아미 :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싫어요. 아버지가 가시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버지만 믿고 따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요?

촌장, 눈빛이 흔들리더니 아미의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뒤돌아서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긴다.

아미 :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NAR - 그래요.. 아버지는 항상 자기밖에 모르셨어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아버지니까... 이번엔 달라요. 저 사람들은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끝까지....》

쓸쓸히 혼자 걸어가는 촌장을 계속 쳐다보는 아미.

S# 7. 부곡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아미가 모습을 드러내자 몇몇 사내들이 다가와 따진다.

사내1 : (어리둥절해하며) 아가씨, 촌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사내2 : (화가 잔뜩나서 아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오늘 아침에 보니께 촌장님이 없어졌습니더. 아가씨, 어제 향분이가 뭘 어떤 놈들이 쳐들어온단 말을 들었다는디 참말입니까? 향분이 고년이 괜한 말을 씨부린 거지애?

사내1 : (손을 내저으며) 아니여! 참말이라는데.

사내 1,2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린다. 아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한다.



사내 2 :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촌장님이 우릴 냅다 버리고 간 거구만애...? 시방,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간거랍니까? (눈가가 빨개진다) 하늘로 솟았드래요. 땅으로 꺼졌드래요. 도대체 어디로 간거드래요 !!!

S# 8. 깊은 산속 (어느새 밤이 된다)

촌장이 걷고 뛰기를 반복하며 도망치는 모습.(5~10초)

촌장, 한 두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뛰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촌장 : (앞으로 나자빠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안되겠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오늘은 여기서 잠이라도 청해야지.

촌장이 나무기둥에 기대어 짐꾸러미를 내려놓는다. 그 순간 긴 칼 하나가 촌장의 목을 겨눈다. 촌장, 눈이 휘둥그레지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쳐다본다.

몽골장수 : (무섭게 쳐다보며) 누구냐.

몽골장수, 칼을 촌장의 목에 더 가까이 들이댄다.

촌장 : (두려움에 떨며)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밑에 처인성 주변 부곡마을 촌장입니다요.

몽골장수 : (칼을 거두며) 끌고 가.

S# 9. 몽골군 진영

촌장, 두 팔이 묶인 채 살리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데고가 그 옆에 서있다. 살리타이, 칼을 닦고 있다.

촌장 :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리타이 : (가소롭다는 듯이) 살려주면 뭘 해줄건데? (당황하는 촌장을 보고 비웃으며) 안그래도 걸리적거려서 그 마을을 휩쓸어 버릴까 했는데 잘됐군. 데고, 내일 마을을 처리할 때 이놈을 데려가. 아주 좋은 인질이 될거야. (정말 비열하게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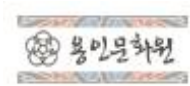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S# 10. 부곡

두삼이가 지계를 땀 채 헐레벌떡 달려온다. 그 바람에 지계 위에 있던 땀감용 나무들이 떨어진 다.

두삼 : (기겁한 표정) 큰...큰일났어요!!!!

아낙네 : (알수 없다는 듯이) 두삼이 총각, 먼일이여??

두삼 : 제가 봤어요!! 저번 전쟁 때 본 적 있는 사람들이예요. 몽고군이에요!!!!



마을 사람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사내2 :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시방, 큰일이여. 참말루!! 근디 그놈들 지금 어딴단가?

두삼 :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로 뒤요. 산 넘으면 바로 보여요. 무기도 챙기고 무척 바빠보였어요.

아미 : (잠자코 듣고 있다가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곳은 위험해요. 여기서 가까운 처인성으로 가요.

두삼 : (지계를 내려놓으며) 처인성요....? 처인성을 너무 작아요. 피차 이곳이나 처인성이나 다를 바 없어요.

아미 : 그래도 이곳보단 안전해요. (마을 사람들을 재촉하며) 당장 떠나요. 어서요!!!

S# 11. 처인성 (아침 일찍)

아미가 앞장서서 간다. 남자들이 큰 짐을 메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안거나 업고 간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처인성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잠시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밖으로 나갔던 고천이 들어온다.

고천 : (심각한 표정) 아가씨, 밖에 몽고군이....

아미 : (망대로 달려가서 촌장을 발견하고, 놀란다) 아버지!!!!

그때, 고천과 고길, 두삼, 돌개가 아미를 따라나오다가 촌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테고 : (말을 돌리며) 네 아버지를 구하려거든, 저 산에 있는 가장 큰 나무 앞으로 오거라. (비웃으며) 촌장인데 설마 쥐새끼처럼 도망갔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겠지.

몽고군사들 : 하하하하하하!!!!

S# 12. 처인성

고천, 마을사람들을 불러모은다.

고천 : 촌장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을사람1 : (삿대질하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우릴 버렸는데 구하자고예?

마을사람3 : (화내면서) 맞습니더! 내는 절대 글케 못합니더!

S# 13. 처인성 안 (저녁)

혼자 망대 위에 서 있는 아미를 보고 고천이 다가온다. 아미,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선다.

고천 : (굳게 다짐한 목소리로) 제가 갈게요. 촌장님이 계셔야 아가씨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을 낼 수 있어요.

아미 : 오라버니, 위험합니다.



고천 : (슬픈 웃음을 지어보이며) 잘 해낼 수 있어요. 다녀올게요.

아미,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고천의 얼굴을 쳐다본다.

S# 14. 깊은 산속(밤)

고천이 남자 2명과 함께 산 속에 매복해 있다.

고천 : (남자 2명에게) 녀석들이 곧 촌장님을 데리고 나타날거야. 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원나라 놈들은 죽여버려.

갑자기 몽고 군사들이 나타나 고천과 남자들을 에워싼다.

테고 : 정말 이곳에 나타났군. 그 놈 말이 거짓일 줄 알았는데..

뒤에서 돌개가 나타난다. 고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다.

돌개 : (무표정으로) 어리석군, 우린 절대로 원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고천 : (돌개를 노려보며) 동정은 바라지 않는다. 죽여라.

돌개, 남자 2명을 칼로 찌른다.

돌개 : (칼로 고천을 찌른다) 미안하네. 잘 가게.

고천 :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옥, 너.....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숨을 거둔다)

S# 15. 처인성

촌장이 한 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황급히 달려가다가 처인성 앞에 도착한다.

촌장 : (다급해하며, 성문을 두드린다) 아미야! 아미야! 이보게, 이보게!!!!

향분이가 달려가 문을 열어주고, 촌장의 등장에 아미와 사람들이 몰려든다.

아미 : (매우 기뻐하며, 촌장을 끌어안는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께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환히 웃으며) 아,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무사하셔서.

아버지, 그런데 천이 오라버니는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그때, 성 밖에서 한 남자가 힘겹게 걸어온다. 남자의 팔뚝에 피가 흐르고, 남자는 피로운 표정으로 상처를 감싸쥐고 있다. 아미와 고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남자에게 뛰어간다.

아미 : 피.... (깜짝 놀라며) 왜 다친거예요? 왜 혼자예요? 오라버니는....??

남자 : (곧 쓰러질듯한 표정, 힘겹게) 적장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자, 말을 끝내자마자 쓰러진다.

S# 16. 처인성 (밤)

쓰러진 남자를 눕혀놓고, 아낙네들이 상처를 치료하며 간호하고 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안쓰럽게 쳐다보던 아미. 밖으로 나간다. 밖에선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다. 멀리서 고개를 숙이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고길이가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자,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고길 : (혼잣말로) 천아...너 하나만 보고 산 이 형은 어떡하라고.... 흑.... (주먹으로 돌을 세계 내리친다) 멍청한 놈!! 못된 놈!!!

아미 : (고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라버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다 제... 잘 못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 천이 오라버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들을, 우리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예요. 제가 돌아가신 천이 오라버니를 위해서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꼭 지킬게요...

고길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S# 17. 처인성 (5~6시, 저녁이 되가는 무렵)

고천의 죽음에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다. 축 늘어져 있는 사람들, 의욕이 없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로 조용하다. 어린 아이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뛰어다닌다.

아미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낙네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아낙네 : (아이들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맴돈다) 아가씨, 저 어린것 좀 보슈. (이내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 지들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새끼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우리새끼, 우리새끼, 참말로 어찌면 좋대예!!!! 흑..

아미 : (아낙네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머니, 그만 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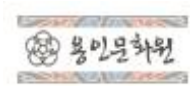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최씨 할아버지가 아미에게 말한다.

최씨 할아버지 : (힘 없는 목소리로) 아미 아가씨... 우리 그냥 행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손녀 곱자.. 좋은 놈 만나서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곱자 :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수북이 쌓인 눈과 풀을 뜯어 먹는 모습, 추위에 덜덜떠는 모습을 보여준다.

S# 18. 처인성 (아침 일찍)



망대에 올라선 고길,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S# 19. 몽골 군 진영

살리타이와 몽골군 장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살리타이 : (근엄한 목소리로) 잘 다녀와라.

몽고 장수1 : (포부에 가득차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살리타이, 소리없는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S# 20. 처인성

고길 : (태양을 보며) 《NAR - 천아,, 형이 네 몫까지 최선을 다할게. 내가 이루려고 했던 꿈...
내가 앞으로 만들어 갈 거야. 지켜봐줘.》

고길이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아미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두삼이가 성 한쪽에 있는 무기창고에서 칼과 창, 활을 찾아서 가지고 나온다.

마을 사람들, 무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친다.

두삼 : (모두 내려놓으며) 이제 우리도 서서히 시작 할 때가 됐습니다. 적들은 무기를 잘 다루고, 말도 잘 타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큰 목소리로) 그들을 대적하려면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낙네 :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그건 아는데.. 우리는 저것들을 만져 본 적이 없단께...

사내1 : (칼 하나를 집더니) 아따,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진다는 것이여. 참말루!!! (칼을 던지면서) 난 못해야! 못해!

마을 사람들이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린다. 고길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고길 :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살 궁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오거든 우리가 막고, 지키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고길의 말에 한명씩 고개를 끄덕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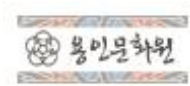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고길 : (정의에 가득 찬 표정)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 뿐입니다.

S# 21. 처인성 안

두삼과 고길이 마을 남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칼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

사람들이 두삼과 고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만 칼이 이리저리 빗나가는 모습.

무술 연습을 하다가 다쳐서 여자들이 풀을 뜯어다 치료해주는 모습.



사람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점차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으로 바뀐다.

S# 22. 처인성 밖

데고가 선봉대 8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처인성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

데고 : (군사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재미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말 고삐를 쥐며) 이랴!

말이 뛰기 시작하자, 군사들도 함께 뛴다. 《E - 말 달리는 소리》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느새, 저녁이 되고 처인성 앞에 도착한 몽고군사들.

데고 : 이 곳을 포위하라. (말에서 내리며) 내일이면 저들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겠지. 모두 내일을 위해 먹고 즐겨라~!

몽고 군사들이 처인성 근처에서 고기와 술을 먹으며 즐기고 있다. 데고와 80명의 군사들이 모두 취해서 그대로 잠이 든다. 밖이 조용해지자 망대위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미와 고길의 밀을 내려다본다.

아미 : (조용히) 완전히 잠들었어요. 저들은 맹수처럼 용맹하지만 지혜롭지 못해요. (고길을 바라보며) 기회예요.

고길, 고개를 끄덕인다.

S# 23. 처인성 밖

잠들어 있던 데고, 눈도 못 뜬 채 일어나서 근처 숲 속으로 간다. 입을 찹찹 다시면서 불일을 보고 나가려다가 흠칫 놀란다. 고길과 두삼 및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온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칼을 꺼내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찌른다.

몽골군 병사1 : (배에 칼이 찔린 채) 으윽!

지켜보던 데고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간다. 다른 병사들도 칼에 찔리자 "윽" 소리를 내며 죽는다. 그 소리에 잠들어있던 병사 한 두 명이 깬다. 남자들이 병사들의 목을 비틀어 죽인다.

S# 24. 보현원

승려 김윤후가 큰 스님에게 인사를 올린다.

큰 스님 :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부디 그들의 눈과 귀가 되거라.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



살~

김윤후 :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S# 25. 처인성 앞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김윤후와 승려 15명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아미 :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인사하며) 어떻게 오신겁니까?

김윤후 : (수줍게 웃으며)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자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늦지는 않았는지요.

아미 : (웃으며)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는다.

S# 26. 처인성 안

아미가 김윤후와 승려들에게 성 내부와 무기들을 보여준다. 아미와 김윤후가 앞장서고, 그 뒤로 고길과 두삼, 승려들이 따라다닌다.

김윤후 : (가지런히 정리 된 무기를 보고)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아미 : (웃으면서) 어젯밤 우리가 원나라를 혼쭐 내주고 가져온 겁니다.

김윤후 : (활 하나를 집어서 만져보더니 아미를 보고 웃으며)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S# 27. 몽고군

살리타이가 탁자위에 올려진 음식들과 술병을 다 손으로 쓸어 던져버린다.

살리타이 : (분노에 찬 표정) 아아아아아아아~~!!!!!!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말도 안 돼... 그깟 놈들 하나 못 죽이다니, 원나라가, 천하의 원나라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 하하 하하하하하.

S# 28. 처인성 안

김윤후와 고길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과 승려들이 무술 연습을 하고 있다.

김윤후 :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칼을 내리쳐!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뀔때까지 계속 하는거야.

S# 29. 처인성

김윤후와 고길, 두삼, 아미, 그리고 몇몇 승려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



다. 김윤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 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고길과 아미, 작전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모습.

S# 30. 처인성 안 (밤)

사람들이 짚을 깔아놓고, 나뭇가지와 풀을 덮으면서 자고 있다.
한 사내가 자리에 누워 눈을 뜬 채 생각에 잠긴다.

사내3 : (다 잘거라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우리 살 수 있을까에...?

사내2 : (귀찮은 듯이) 잠이나 자.

사내3 : (장난스럽게) 나 잡히면 구하러 올겁니까?

사내2 : (무뚝뚝하게) 그렇구말구.

사내3 :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성님, 만약 내 죽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꼭 전해주래예. 이 못난 놈이 어머니 많이 사랑한다구.

사내2, 사내 3의 얼굴 반대쪽으로 돌아누운다.

사내2 : 시방, 니 한분만 더 그딴 소리 해봐라. 우리가 죽긴 왜 죽는다고 그러노?!!! 승려님들도 계시고, 우린 한 번 이겨도 봤는디! 내일 싸움에서 줄다가 돼지기 싫으면 퍼뜩 잠이나 자라.

사내 2, 슬픈 웃음을 짓는다.

S# 31. 몽고군

수많은 군사들이 서 있다. 살리타이가 전투준비를 끝내고 말 위에 오른다.

살리타이 : (군사들을 내려다보며)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살리타이, 말 고삐를 잡아쥐고 달린다. 《카메라를 뒤에서 비춘다》 살리타이의 말이 달리자 말을 탄 장수들과 군사들이 뒤따라 간다.

S# 32. 처인성

사람들이 몰려있다. (마을 사람들, 승려들)

김윤후 : (한 가운데 서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따뜻한 형제애를 지닌 어느 마을 사람들을요. 당신들로 인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칼을 하늘 높이 찌르며) 이미,,, 우리는 승리자 입니다!!!!



마을 사람들,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카메라 - 정의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한 명씩 보여 준다.》

마을사람1 : 우리는 죽을 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자리에서 외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웁시다! 우리 손으로 우리들을, 우리 마을을, 우리 조국을 지킵시다!
승려들, 마을사람들 : (다 같이) 마지막 한 순간까지, 죽어도 전쟁터에서 죽자! 끝까지 싸우자!!!!

마을 남자들 모두 처인성에 남겨진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작별인사를 한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성 문 밖으로 발을 돌린다.

할머니 :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다 사내3을 발견하고) 아범아! 살아와야 돼....

사내3, 잠시 멈춰서더니 눈물범벅이 된 채 악을 지르며 성 밖으로 뛰쳐나간다.

S# 33. 처인성 밖 전투 (김윤후)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살리타이 : (잔인한 표정으로) 보이는 족족 잡아죽여라!!!!

몽고장수들이 말을 탄 채 큰 창을 휘두르면서 승려들과 마을 사람들을 죽인다. 마을 사람들, 제대로 된 공격도 해 보기도 전에 모두 창과 칼에 맞아 쓰러진다. 《E : 칼 부딪치는 소리》

김윤후와 두삼과 고길, 뛰어난 무술 솜씨로 적군들을 죽인다.

한 몽골 장수가 김윤후에게 덤비자 김윤후와 몽골장수의 칼이 X자로 맞붙게 되고, 힘겨루기를 한다. 《C.U》 김윤후와 몽골장수, 서로 노려보며 밀고 밀리기를 반복한다.

김윤후 : (힘껏 몽골장수를 밀어내며)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 마라. 그 켜,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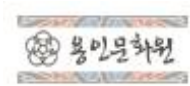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김윤후의 힘에 몽골장수가 뒤로 밀려난다. 그때, 김윤후가 재빨리 몽골장수의 목을 벤다.

S# 34. 처인성 밖 전투 (두삼)

살리타이가 처인성 안에 여자들과 노인들, 어린아이들의 두 손을 묶은 채 인질로 잡았다. 살리타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 마을 사람들 앞에 내보인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린다.

살리타이 : (어린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이를 구하려거든 칼을 버려라.

두삼이가 한창 싸우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서자, 몽고 장수들이 두삼의 주위를 에워싼다. 모두 살리타이의 명령만을 기다린 채 두삼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두삼 : (아이를 주시한 채) 아이를 보내줘.

살리타이가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높게 쳐 들자 두삼이 달려가서 아이를 꼭 껴안는다.
그 순간, 살리타이의 칼이 두삼의 등을 세게 내리친다.

두삼 : (등에 칼을 맞은 채, 아이에게) 괜....참....니.....?

지켜보던 몽고 군사들이 일제히 모두 두삼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른다.
두삼의 등이 수십개의 칼자국과 찔린 창 자국으로 인해 피범벅이 된다.
그럴수록 두삼은 아이를 더욱 꼭 껴안는다.

두삼 : (눈에 핏발이 서며) 읍!..... 으윽....

《O.L - 두삼은 그 동안 마을에서 잔치를 하며 즐거워했던 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고천이 죽어서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던 일, 전쟁 때문에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 모습, 열심히 무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두삼 :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한다) 썩 좋은... 인생이었다....

두삼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이내 초점이 흐려지더니 아이를 꼭 안은 채 앞으로 고꾸라진다. 여전히 그의 품에서 안긴 아이가 울고 있다.

S# 35. 처인성 밖 전투 (고길)

김윤후와 마을사람들, 승려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고길이 말의 다리를 칼로 치자 말이 넘어지면서 말 위의 장수가 떨어진다. 몽골장수가 달려들어 고길 위를 덮치고 목을 조른다.
고길이 괴로워하다가 있는 힘껏 몽골 장수 위를 덮치자 칼이 떨어진다.

고길 : (몽골장수의 멱살을 잡아 뒤 흔들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 네놈들이 우리들의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다 뺏어갔어! 너도 죽어, 죽어!!!!!!

몽골장수가 자신을 덮친 고길의 배를 발로 차고, 고길이 나가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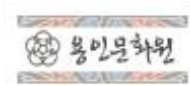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몽골장수 : (입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떨어져 있던 칼을 집는다)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좋을거다.

고길 : (칼을 집어 들고 일어선다) 멈추기엔 아직 이르다. 나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몽골장수 : (입안 가득 피범벅이 된 채 씩씩 웃는다) 제법 용맹스럽군. 이제 황천길로 보내주마.

《T.U》

몽골장수 : (고길을 향해 악을 지르며 달려든다) 아아아아아~~~~!!!!



고길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간다. 두 사람의 칼이 거의 동시에 서로를 겨냥한다. 이내 고길의 표정이 굳는다. 《카메라 - 고길의 칼은 몽골장수를 맞히지 못했지만 몽골장수의 칼은 고길의 다리를 벤 모습을 보여준다.》

고길 : (다리에 피를 많이 흘리며 주저앉는다) 천아.....

몽골장수, 때를 틈타 칼을 하늘 높이 올려 고길 머리를 내리치려고 한다. 《LOW ANGLE - 몽골장수의 칼이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무섭게 보이게 한다.》

몽골장수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돌개가 창을 던져 몽골장수의 몸통을 꿰뚫는다.

돌개 : (고길에게 손을 내밀며) 나를 용서해 주겠나...?

고길, 눈물이 맺힌 채 웃음을 짓는다.

S# 36. 처인성

아미, 작은 칼을 가지고 손에 묶인 밧줄 자르기를 계속 한 결과 밧줄을 푼다.

아미, 손이 묶인 사람들의 밧줄을 풀어준다.

아낙네 : (머리가 형클어진 채 아미를 재촉하면서) 아가씨, 지두유, 지두유!!!

살리타이가 인질로 잡아 둔 사람들을 데리러 간다.

아미, 사람들을 데리고 성문 쪽으로 도망가다가 살리타이와 맞닥뜨린다.

살리타이 : (아미 앞을 막아서며) 어딜가려고.

아미 : (당황해하다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꼭... 이겨야 해요. 어서 도망가세요. 어서요!!!

곱자, 뒤돌아서서 아미를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아미, 곱자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열린 미소를 보낸다.

곱자 :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가요!

곱자와 마을사람들, 성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연다. 문이 열리고 한창 싸우고 있는 승려들, 마을 사람들과 몽고군이 보인다. 김윤후, 몽고군 군사를 죽이다가 성 안에서 나오는 곱자와 마을 사람들을 보고 달려간다.

김윤후 : (깜짝 놀라며) 위험해.

곱자 :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미 아가씨가 더 위험해요.

S# 37. 처인성 안



살리타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혼자 남겨진 아미를 노려본다. 아미, 살기를 느끼고 두려움에 뒷걸음질친다.

살리타이 :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또 다시 우리 원나라가!! 천하의 살리타이가 칼 한 자루 제대로 못 잡던 이딴 놈들한테!!! 이 살리타이가!!

이때, 멀리 떨어져 있던 칼이 살리타이의 눈에 들어오고 칼을 집어서 아미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S# 38. 처인성 밖 전쟁터

김윤후, 그제서야 처인성 안의 아미와 살리타이를 본다.

성안에는 살리타이가 칼을 든 채 아미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

김윤후, 재빨리 옆에 있던 사내의 활과 화살을 뺏어들어 살리타이를 향해 쏘고, 화살이 살리타이의 심장을 가격한다. 살리타이가 잠시 휘청하자 김윤후 화살 3개를 동시에 쏜다.

3개의 화살이 살리타이의 배에 꽂힌다.

살리타이 : (피를 토한다. 아미 바로 앞에 쓰러지며) 으윽!... 이 살리타이가... (눈을 뜬 채 숨을 거둔다)

아미, 화살이 날라온 곳을 바라보다 김윤후와 무사한 마을사람들을 보고 밝은 웃음을 짓는다.

데고 : (화살을 맞고 죽은 살리타이를 보고 외친다) 살리타이 장군이 돌아가셨다! 퇴각하라!

몽골장수2 : (몽골군사들을 향해 급하게 외치며) 퇴각하라! 퇴각하라!!!

데고와 몽골장수들이 말을 돌리자, 몽골 군사들도 도망간다.

몽골군사들이 다 사라지고, 처인성 앞에는 시신들과 피로 가득하다.

S# 39. 처인성 안

성안에 얼이 빠진 채 혼자 서 있는 아미, 그녀의 앞으로 김윤후와 승려들, 고길과 돌개, 곱자와 마을사람들이 나타난다.

아미 : (믿기지 않다는 표정으로) 우리가 이긴 거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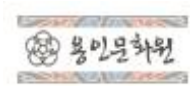
마을 사람2 : (기뻐하며) 기적이래예. 우리가 참말루 참말루 이겼단말입니더!!!!

향분 : (감격에 겨워 아미에게 뛰어가며) 아가씨, 우리가...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사내2 : (눈물을 꺾 머금은 채) 시방, 이런 날 머하러 우나!!!

사내2, 말을 마치자마자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는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있다.



할머니 : (사내들과 승려들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맘껏 우라. 고생했구만. 참말로 장하다. 장하다!!

마을 사람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하며 행복해한다.

마을사람들 : (만세를 하며) 우리가 해냈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아아아아아아~!!!!

김윤후 :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NAR - 당신들의 믿음과 희망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인은 연약하지 않고 민중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미, 김윤후와 눈이 마주친다. 아미와 마을 사람들 모두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그 날 따라 유난히 밝은 태양이 그들을 한껏 내리쬰고 있다.

그 아래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해맑게 뛰어다닌다.